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문 0/T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동방인쇄 (051)636-9477
在京同窓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2, FAX: (02)783-0073

8년만의 부활... 본부 기별남시대회 "대성황"

▽8년 만에 부활돼 지난 4월 22일
경남 의령 가락저수지 동서 열린 제
12회 기별대항남시대회 입장식.

8년 만에 부활된 제12회 기별대항남시대회(민물)에서 영광의 종합우승은 조력 20년을 자랑하는 제21회동기회가 낚았다. 준우승은 불과 27mm차를 보인 제18회동기회가 차지했고, 감투상 장려상 자연보호상은 각각 제11, 12, 32회가 받았다. 그리고 공로상은 부산시 낚시연합회 회장으로 이번 대회를 적극 지원한 안강태동문(11회·본부부회장)과 많은 상품을 협찬한 (주)은성사 대표이사 박보국동문(12회·본부부회장)이 수상했다.
또 이날 개인전에서 MVP는 238mm 참붕어를 건져올린 서고명동문(16회)이, 준우승은 김기성동문(18회 - 208mm)이, 3위는 최병수동문(6회 - 204mm)이 각각 차지했다.



제21회 종합우승 낚았다



△제21회 동기기회 A팀의 선수들이 영예의 종합우승을 낚아 우승기와 부상을 받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32회 - 168mm)·준우승 김성재(22회 - 165mm)·3위 김태원동문(39회 - 155mm) △최초는 우승 강수경(21회 - 172mm)·준우승 이의환(31회 - 163mm)·3위 손영방동문(19회 - 155mm) △적조는 우승 김진

**준우승 제18회·3위 제16회
238mm올린 서고명(16회) MVP
29개팀 180여명 참여
봄들놀이 겸해 "신바람"**

국(31회 - 160mm)·준우승 서강태(30회 - 157mm)·3위 김홍진(21회 - 140mm) 황성동 동문(24회 - 140mm)이 각각 받았다.

29개팀(1팀 3명 출전) 87명의 선수가 정해진 포인트에서 기량을 펼친 대회는 출전 선수를 비롯, 행사운영요원 30여명과 응원에 나선 동문-가족 70여명 등 모두 18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7시 의령 정곡도민운동장에 도착한 선수 및 응원단은 진경일 대회장(20회·경수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가졌고 오후 3시 입상자 시상에서 이어 폐회식을 치렀다.

강동숙 경수회 고문(6회)은 개회사를 통

해 "8년 만의 기별남시대회는 동문과 가족을 하나로 유대시키는 튼튼한 친선의 끈이 되었다"며 "야유회를 겸한 행사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이처럼 성황을 이룬 것은 진경일 경수회장의 적극적인 기획 지원과 경



△동문·가족들이 대회장 주변에서 시상식에 앞서 단합회를 펼치고 있다.

수회 집행부의 치밀한 추진, 각 동기기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성원이 결집된 결과이다.

이날 본부에서는 안강태 오완수 부회장(이상 11회)과 최득호 사무국장(11회) 김병수 총무부장(22회) 등이 즐거운 대회를 위해 헌신했다.

江心 흔든 신나는 장기자랑

일행은 이날 새벽 4시30분 관광버스 2대와 승용차에 분승, 부산지역 광장을 떠나 오전 6시30분 현지에 도착, 대회에 들어갔다.

응원에 나선 동문-가족들은 야유회를 겸했기에 흥겨움이 넘쳤다.

제6회 동문들 노익장파시

특히 제6회 동기기회의 선수·응원단은 노익장을 파시했고 후배들과 어울려 격려하고 정담을 나누는 등 귀감을 보였다.

동문-가족들은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한 곳에 둘러앉아 노래와 장기자랑으로 흥을 돋웠고 성적발표를 듣고 환성과 아쉬움의 교차속에 묻혔다.

동문과 가족들은 이날 주최측에서 마련한 한방돼지고기와 쇠고기국밥으로 봄들놀이를 만끽했다.

대어상 한턱에 지갑 등나

이날 MVP로 뽑힌 서고명동문(16회)은 조력 25년의 베테랑. 서동문은 "오전 7시30분경 수초 끝자락에서 입질이 와 낚아챘고 묵직한 도전에 대어임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후문에 따르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서동문은 일행의 성화에 못견뎠다 한턱내는 바람에 지갑이 찢어졌다(?)고.

생면에 관한 모든것



대표 金斗泉 (제26회)

창업 44년 —
선친의 대를 이은 家業精神을
품질과 성실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취급품목 ●

- 고구마전분
- 메밀 가루
- 냉면 재료
- 냉면 기계
- 주방설비A/S
- 요리사알선
- 가 오 리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6-9
본사 : (051) 311-5930
공장 : (051) 311-5931
팩스 : (051) 311-2040

시평



김경희 제9회·재경동창회 고문 (주)용마공업 대표이사

더 동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공할 일은 종군위안부나 징용 같은 강제연행을 아예 외면하거나 단순한 동원으로 적고 있다.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엔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부 언론이 가세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의 고교

역사는 '2600년이 넘는 것'으로 날조한데다 조선의 상고사(上古史)를 '신화'로 만들었다. 통탄할 일은 일본은 그들이 만든 조선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史料)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만 남기고 27년 동안 전국을 뒤져 조선 상고사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 불태워버렸다.

어 일제의 식민사학자 이마니시다즈 밑에서 공부해 식민학자가 된 이병도 신석호만 남게 되었다.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로서 일제가 조작한 조선사를 토대로 '국사대관(國史大觀)'을 만들어 가르쳤다. 따라서 한국의 사학자 대부분이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들로서 일제가 조작한 조선사는

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논란으로 야단인데도 진작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하는 고교생은 1학년 때만 기본교과로 국사를 공부하고 2~3학년생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이수도록 한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에 관해 철저히 사과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은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엄청난 물질적인 보상으로 속죄했으며, 특히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정확히 기술했다. 전 세계가 독일이 변했음을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믿음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스런 일본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조작된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는 일본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선행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문제를 국민적 결의로써 배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역사왜곡 좌시말자

서울대 손봉호(孫鳳鎬) 교수는 최근 KBS1-TV 아침뉴스 객원해설가로 나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인과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관료들과 지도층의 소신 없는 태도를 두고 '우리 역사 바로 지키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검정을 신청한 왜곡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한일합방은 합법이며 △주변 국가들을 침략한 사실이 없고 △서방국들로부터

교과서마저 날조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1910년 강제합방을 통해 대한제국의 실권을 빼앗은 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식민지통치를 감행케 했다. 1922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다. 16년에 걸쳐 조선사 35권을 완성, 1938년 출간했는데 이름 그대로 '날조된 조선사'였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2300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작했고, 반면 일본

당시 이마니시다즈(今西龍) 등 다수가 대표적인 일제 식민사학자로, 쓰다소카치(津田左右吉)와 서울대 이병도(李丙巽) 박사가 삼국사기 불신론의 대표자로, 이 박사와 고려대 신석호(申奭鎬)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였다. 어윤적(魚允迪) 윤재구(尹在求) 등이 조선의 대표적인 편수위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쉬운 것은 6. 25때 정인보(鄭寅普) 안재홍(安在鴻) 손진태(孫鎭泰) 등 민족사학자들이 남북

실증적이며 다른 사료(史料)는 믿을 수 없는 실증되지 못한 것이라고 부정했던 것. 이들 비뚤어진 학자들이 쓴 국사의 근대사 중에서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상고사를 말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 미국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한국사에 관해 제대로 쓰고 싶어도 한국에서 퍼낸 영어로 된 한국사 자료가 없어 부득이 일본 역사책을 참고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에

이근식(19회)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

"민생치안과 시민질서 확립,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 및 사기진작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단행된 개각에 즈음해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된 이근식동문(19회·사진)이 취임소감을 이 같이 대신했다.
이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10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역경제과장·총리비서실 정부비서관·청와대 일반행정-민정-공직기강비서관·내무부 차관 등 주요 부처를 두루 거쳤다.
또 거제군수·장승포시장·경남부지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용하고 깔끔하며 다정다감한 이동문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실무능력을 수준이상으로 발휘

하는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민주당 통영-고성지구당 위원장·한국감정원장 등 역임.

김형기(24회) 통일부 차관 영진

"기틀을 다진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은 미국의 부시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25일 단행된 개각을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형기동문(24회·사진)이 통일부 차관에 영진,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77년 고(故) 이용희장관의 권유로 통일부에 들어와 공직생활과 인연을 맺었다.
그동안 대북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을 주도해온 김동문은 문민정부 후반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쳤고 남북회담사무국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의 골격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의 회담전략 대책반으로 6.15공동선언을 막후서 만들어 냈고 3차 남북장관급회담부터 회담대표로 참여했다.

클로즈업



이사장·명예교수 취임

아시아 10여개국 대상 연내추진 계획

300여명 박사 배출

김재열동문(19회·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사진)은 지난 2월25일 중국 심양시 요령대학교에서 자신이 관여해 설립된 '아시아연구센터' 이사장에 취임했고 이 대학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아시아연구센터는 요령대 총장과 부총장 등이 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학문연구비 지원과 아시아 국가간의 학문적 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된다.

특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권 10여개국에 연내 연구센터를 설립,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종합적인 학문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재열(19회) 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중국 요령대 '아시아연구센터' 설립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 이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문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27년간 사무총장을 맡아 오면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세계 일류대학에 유학시켰고, 이들 중 3000여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데 뒷바라지를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대학교수 50여명을 한국으로 초청, 연구비와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며 한국의 여러 연구소와 대학에서 1년간 연구토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학자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된다.

김동문은 현재 고려대 연구교수·한국외국어대학 이사·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 경영위원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임원 및 사무국요원 명단

- 고문**
安鍾武(6회·회락약국 대표)
趙永柱(7회·전 창선중학 교장)
劉今烈(9회·전 고성군수, 경남택지개발공사 이사장)
金英國(9회·전 진영여중 교감)
河榮洙(10회·피부비뇨기과의원장)
李基敦(10회·동양화재보험 고문역)
- 자문위원**
安永圭(12회·마산노인병원장)
李景宰(13회·동진분석기술연구소 대표이사)
金寬(14회·재원기업 전무이사)
李峻(15회·부산우유 동물병원장)

- 李性仁(16회·동마산병원장)
李洙昌(17회·직전회장, 경남관광협회장 남광석유판매 대표이사)
- 감사**
朴昭雄(16회·창원대 경남대 출강)
全昌雄(17회·코리아마트 대표)
- 회장**
金在根(19회·동마산병원 원장)
- 수석부회장**
金振煥(20회·대아건설 회장)

- 부회장**
崔民錫(21회·유원산업 회장)
金羽鴻(22회·한국프렐 대표이사)
李相烈(23회·파파이스 신마산점 대표)
金英徽(24회·창원 신경외과병원장)
趙良濟(25회·두산중공업 경영기획팀장)
李備熙(26회·이용회신경정신과의원장)
金鍾河(27회·김종하치과의원장)
鄭英周(28회·정안과의원장)
金甲泰(29회·한솔병원 방사선과장)
張浩榮(30회·진주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
- 상근부회장**
鄭承洙(19회·직전 사무국장,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이사)

- 사무국장**
河成一(22회·신광교통 대표이사)
- 회보편집장**
李相熙(25회·우리정보기술 상무이사)
- 총무**
金正郁(26회·가원건축 설계사무소장)
수석부총무
安井摸(32회·선명철강 유 대표이사)
- 부총무**
朴正秀(34회·비에스테크 대표이사)
金誠俊(42회·동산 관리과)

동창회사무실
경남 창원시 내동 456-12 공단소풍상사 224호
TEL. 055-266-7009(FAX 겸용)

馬昌 '더욱 강한 동창회' 로

정기총회서 결의... 신임회장 김재근(19회) · 용마대상 이상희(25회) 수상



마산-창원지역 동창회는 지난 3월 22일 오후 7시 경남 마산시내 사보이호텔 4층 대회의실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재근동문(19회·동마산병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수창회장(17회)은 이날 총회를 주재,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이상희동문(25회) 용마대상을, 이상렬(23회) 김성준동문(42회)에게 공로상을, 최민석 여환부(이상 21회) 공민배동문(27회)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는 임원개선에서 회장을 새로 뽑은 데 이어 이수창 직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했고 박소용(16회) 전창용동문(17회)을 각각 감사로 선임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는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축하화환을, 진주 포항 등 지역회에서 축전을 보내와 행사가 더욱 빛났

다. 김재근 신임회장은 지난 3년간 동창회 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이수창 직전회장에 감사패와 회장명패, 그리고 3년간의 활동상황이 담긴 기념앨범 등을 전달했다.

또 이수창 직전회장은 김신임회장에 회장명패와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 임원과 사무국 요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김재근
- △부회장=정승수(19회·상근) 김진환(20회·수석) 최민석(21회) 김우홍(22회) 이상렬(23회) 김영철(24회) 조양제(25회) 이용희(26회) 김종하(27회) 정영주(28회) 김갑태(29회) 장호영(30회)
- △사무국장=하성일(22회)
- △회보편집장=이상희(25회)
- △총무=김정욱(26회)
- △부총무=안정모(32회·수석) 박정수(34회) 김성준(42회).



재경8회 명부제작... 號도 넣기로

제8회재경동기회는 2001년 회원명부 제작과 관련, 핸드폰번호 E메일주소를 접수한 데 이어 호(號)를 한자로 기재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호가 있는 동문은 '회장(부재시 추동명) 전화 031-494-1141·팩스 031-495-8335'로 연락바람.

▷팔선회(회장 이유환) 4월 정례바둑대회가 지난 4월7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열려 김진석동문이 우승했다.

이날 대국에는 이회장을 비롯, 이종수 조석제 이준근 추정화 김진석 신현주 윤태영 이창근 손대근동문 등 10명이 참석했다.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올해 두번째 모임인 98회 월례회를 지난 4월12일 안성CC에서 열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이유환·준우승 전영배·니어리스트 홍기성·행운상 배주원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전은희·행운상 장은아씨가 차지했다.

김진석 바둑패권
이유환 전은희 골프우승

홈커밍 5월12일 "총집합"

제15회 정기총회 개최... 정창환회장 유임



제15회동기회는 지난 3월3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용마홀'에서 2001년 정기총회

를 열어 정창환회장(변호사·사진)을 유임시켰다.

정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김관열총무의 사회로 진행, 결산보고(강무상 총무)와 올해 예산

안 및 동기회관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개선에서 김기평 윤상준 감사와 강무상 김관열 조일량총무를 재선임했다.

특히 총회는 오는 5월12일로 확정된 졸업4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더욱 알차고 뜻깊게 개최하기 위해 전 동문이 참여·협력하여 '저력의 15회'를 과시할 것을 다짐했다.

경열회, 바둑·산행·골프·별미 등 4월수업 "열기"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회장 서진홍)의 지역·직능별 친목회는 '4월 학급수업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사니조아회는 오는 4월29일 진달래로 유명한 불암산에 오르고 (3월 수업-안우만동문 등 15명 출석), 경록회는 26일 자유CC에서 부인동반 골프대회(3월 수업-고석명 등 25명 출석)를 개최하며, 강남화요회는 24일 동기회사무실에서 모임을 갖을 예정이다(3월 수업-김동곤 등 17명 참석).

한편 경열기우회 주관 바둑대회가 21일 동기회사무실에서 열려 소주가 곁들인 저녁식사로 우정을 꽃피웠다. 이날 입상 및 참석자들은 김영덕회장이 협찬한 각종 상품과 기념품을 받았다.

또 여의도화요회는 17일 낮 12시 '여의도옛골'에서(3월 수업-김상태 등 8명 출석), 안산화요회는 10일 낮 12시 '다리목추어탕'에서

(3월 수업-김기문 등 4명 출석), 강북화요회는 3일 낮 12시 중앙극장 건너편 '평래옥'에서(3월-김달현 등 28명 참석) 각각 모여 점심을 들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제17회 새 회장 정해전 부인동반 70여명 "성황"

제17회동기회는 지난 3월2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코리아나 뷔페에서 동문-부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박가식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정해전동문(특수지류 수입판매 팬더상사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정해전 신임회장은 인사말에 앞

서 그동안 동기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박가식 직전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국회의원인 정형근 동문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즐거운 시간이 길어졌다.



단됐던 기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정환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윤상준 총무의 사회로 진행, 임원개선을 통해 이추남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정창용동문을 신임총무로 각각 선임했다.

제15회 동기회의 일요기우회는 지난 4월7일 오후 2시 동기회관에서 회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지난해 7월 이후 일시 중단됐던 기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大馬不死

일요기우회 再起의 포석

이추남 회장 선임 "약진"도모

주점 초대 등으로 신바람을 피웠다.

제2기 일요기우회 출범은 정창환 동기회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바둑을 사랑하는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뤄졌다. 이추남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요기우회의 우정 넘치는 운영을 위해 '반상대화'의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이 신임회장 주관의 회식(용광횃집)과 김학현 전 동기회장의 '일요기우회 재출범 기념' 뒤풀이(샤넬단란

제14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문운용 손광웅 신길송	감사	안상환 조영봉	양정우	염상주	유정호	1.4 회 회장 류충일 총무 정상진
	강주신 박병선 윤영현			윤용남	이동식	이명재	경사회 회장 김용호 총무 박삼현
	류충일 박효건 이길미	이사		이승오	이영준	이진우	경조회 회장 한규환
	정시영 노수덕	강돌이 공철성 구자신		임의수	장삼식	정상진	경문회 회장 한규환
회장	한규환	김관 김건호 김영식		정삼영	정의광	정현구	낙석회 회장 박병선
		김영우 김영대 김이길		조규태	최성웅	최충락	등대회 회장 김청수
		김익명 김우구 김의웅		하광진			등산회 회장 최충락 총무 조대무
부회장		김재도 김청수 김홍관		총무			보수회 회장 김재도
김용호 김덕행 신현호		문성필 박문남 박중철		박정홍			의약회 회장 황원규 총무 염상주
이종민 황원규		박종문 박춘제 박용화					
		반미태 신용진 서정영					

동문아들 살리려 성금 모았는데...

재경21회서 치료비 1000만원 전달했으나 끝내 숨져

“투병 중인 장성한 동문의 아들을 살리자!”

제21회재경동기회가 백혈병을 앓고 있던 장성한 동문의 아들을 살리려기 위해 치료비 모금에 나서 큰 호응을 받았으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뒤늦게 동창사회에 알려져 애절함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성금모으기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동문들에게 퍼져 나갔다.

제21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기호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동문들이 성금대열에 참여, 1000만원을 모았고 같은 해 12월 초순 이 성금을 장동문에게 전달

장성한 장남들기 성금 기탁자

성명	성금액
김현규	100,000원
고윤득	100,000원
구본능	2,000,000원
박종영	250,000원
김갑열	250,000원
방효상	250,000원
김동현	250,000원
허창수	1,000,000원
이동채	1,000,000원
전경수	200,000원
김인복	100,000원
최재권	1,000,000원
김홍근	1,000,000원
이일희	1,000,000원
이영훈	1,000,000원
동기회기금	500,000원
합계	10,000,000원

했다. 그러나 장동문의 아들은 끝내 이승을 등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번 성금모금운동에는 동기회 기금 중 50만원을 비롯,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쾌척해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번져나가게 한 계기를 마련했다.

장동문은 동문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투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짧은 삶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장성한 동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체험한 귀중한 감동”이라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동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먹였다.



태백산서 “펼펼”... 눈꽃축제 만끽

경팔산우회 14명 견재

제8회재경동기회의 경팔산우회 산꾼들이 지난 2월6일 태백산(1566m) 중추에 성공, 노익장을 과시했다.

김영철 회장 등 14명(노재복 김태용 김호석 문규환 서영욱 이희순 김영학 전광원 조윤제 홍기성

임영택 염병영 박성재)은 이날 새벽 5시 기상, 산행에 들어가 유일사~천제단~장군봉~당골 코스의 눈꽃장관에 심취했다.

산에서 내려온 일행은 태백시에서 목욕으로 피로를 풀고 늦은 점심을 나눈 후 서울로 돌아왔다.

마음맞는산꾼 더 늘리기로

경팔산우회장 김문각

경팔산우회는 지난 3월31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석화그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김문각동문을, 총무 겸 산행대장에 엄덕량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동문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를 주재한 조봉석회장은 임원개선에 앞서 회고사

독일에서 온 우동천 함께 어울려 기쁨두배

를 통해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산우들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문각 신임회장은 앞으로 산우들의 우의 증진과 산우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확충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독일에서 사는 우동천 동문이 참석해 반갑고 즐거운 한때를 마련했다.



신나는 수학여행- 일육산악회장 김길정 제16회 일육산악회는 지난 4월 14-15일 2001년 정기총회를 겸한 관광산행을 전북 내장산 백암사-고창 선운사(동백꽃 관광·풍천 장어 맛보기·노래방단합회)-도솔산(선운산) 동반-김제 모악산 금산사(벚꽃관광)-전주(비빔밥 점심-전주에서 활류한 박상우동문 협찬)-진안 마이산 탐사 등으로 단행했다. 동문-가족 30명(부인11명)은 첫날인 14일 선운사 절골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장에 김길정·부회장에 김천문·감사에 이경일·총무에 최정일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33년 전통... 한뜻 모아 빛내자”

일육회 정기총회 열고 운영식 신임회장 뽑아



제16회동기회는 지난 3월29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옥정프라자뷔페’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 운영식동문(세동 대표이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동문 50여명이 참석, 임원을 개선하고 화합과 결속에 일제히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는 본부이사로 김정호 김조 박민소 운영식 차상영 동문을 선임하는 데 동의했다.

운영식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기회 창립 33년의 전통을 더욱 빛내기 위해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회장=운영식 △부회장=신평양 안국정 여성국 △감사=황규정 △사무국장=강종국.

“도일봉에서 우정 심자”

재경21회 5월1일 가족동반 등반대회

이번 행사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석탄일)을 택했다.

동문-가족은 이날 오전 8시까지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성남방향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는 전세관광버스(환승주차장 지나 스포타임 앞)에 오르면 된다.

각자 점심용 도시락과 회비(홀로 2만원·부부 3만원)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하산 후 단합회 거행.

바로 잡습니다

회보 제322호(2001년 3월24일자) 1면 용마장학회 방봉우감사(10회)의 직책은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아니라 ‘이원회계법인 대표’입니다.

또 8면 광고 ‘울산지역동창회 임원 명단’이사 중 ‘이인광(32회)’은 ‘허상연’으로, ‘장성욱(32회)’은 ‘박경호’로 각각 바로 잡습니다.

일육회 거류산 정복기

강종국

일육산악회 2001년 3월 정기산행이 예정대로 지난 3월18일 경남 고성 근교 거류산(571m)에서 열려 강종국 김찬문 김태수 서고명 서태복 엄종원(부인 진기숙) 여성국 이경일 최정일 최현우동문(부인 이경란) 등 12명이 감투했다.

전날 내린 약간의 비에다 18일 비가 올 것 이라는 일기예보로 참가자가 적었으나 산행은 정말 재미있었다. 시인들이 산경치를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읊었으나 거류산은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경치가 더 일품이다. 마누라와 같이 즐기지 못해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 점심을 정상에 올라선 다음 하

느냐 밑에서 하고 올라가는나로 서로 고집을 부렸다. 결국 다수결에 따라 밑에서 하기로 했다.

전부 배가 고팠던 탓으로 산행대장 명령 듣지 않은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었다. 정말 산에서 먹는 밥은 맛이 꿀맛이다(사모님들, 집에서 안 먹는 반찬 전부 산으로 가져오세요, 냉장고 안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정상에서 등산로를 따라 임도 휴게소~약수터~장의사~이정표~사다리~교각~무지개터~거류산성터로 해서 하산했다. 도로까지 내려오니 발에는 보리가 한창 피어있었다. 보리밭에 들어가 크기를 인치로 재 센치로 환산해 보니 54.22Cm. 보리엔 이런 글귀도 새겨져 있었던 것 같다. ‘보리밭에 가보지 않고



는 보리밭에 대해 논하지 마라’. 금년 보리는 대풍인 듯하다. 발엔 마늘 무도 잘 자라고 파와 양파도 키 재기를 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썩과 겨울초는 정말 입맛을 당기게 했다. 1000원어치인데 한 보따리 준다. 1000원으로 마누라

를 즐겁게 해주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게 다 등산단덕이라고 자위한다.

돌아오는 길에 마산의 최현우 부부가 주선해준 돼지고기 수육과 국밥을 맛있게 먹고 헤어졌다. 마산만 경유하면 친구들 대접하는 인정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살림이 거들나지 않는 한 계속하시길 기대한다.

집에 잘 도착해서는 피곤한데다 ‘마산술’이 얼근해 잠이 쏟아지는데 ‘파르릉’하고 전화가 심통을 부린다.

“여보세요” “어, 애들 잘 커나” “그래 애들 잘 커고 나는 잘 늙고 있다. 와, 와 전화해도” “아! 모키(木姬: 내 딸 이름) 잘 커는 강 시퍼서” “니 누고?” 그랬더니 ‘잘라’ 하고 저쪽에서 전화를 끊는다. 오밤중에 마누라가 자지 않고 있었다면 어쩔뻔 했을까? 그리고 우리 애가 스물 일곱살이나 먹었는데 그가 똘똘 잘 크느냐 걱정하던 말인가. 더 클 것도 뭐가 있다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어느 작자인지 찾는다고 아침에 일일이 전화했더니 모두들 “난 전화한 일 없데이...”

(제16회 동기회 사무국장)

제18회 사랑방 '중앙동시대' 개막

30여 동문-가족 축하 속 테이프 커팅



제18회동기회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 무실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회장으로 이성일동문(삼보산업 전무·사진)을 뽑았다. 김종철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5명이 참석, 결산보고 승인에 이어 임원을 개선했다. 이성일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면의 동기회사무실을 중구 중앙동2가 49-2 대진빌딩 302호(051-244-1864·팩스 051-248-

이성일 신입회장이 대진빌딩에 마련

1864)로 옮겨 동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랑방이 되게끔 하겠다고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중앙동 동기회사무실 개소식이 같은 달 30일 오후 7시 3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자축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이성일 △부회장=박덕진(수석) 김만근



김사권 김종금 남두진 박도형 이대운 임도근 박정길 홍우재 △감사=홍광희 박석도 △총무=오수명 육병규 장수일 △서클회장단=홍광희(동산) 김성수(남시) 양정만(바둑) 이상민(테니스) 박종순(골프).

"칠십고개 눈앞에 더욱 아끼며 살자" 제6회동기회 정기총회

제6회동기회 2001년 정기총회가 지난 3월27일 오후 6시30분 부산 사상구 사상동 서부버스터미널 앞 파라곤호텔 2층 뷔페에서 열렸다. 임경택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

수총무가 보고한 경과 및 결산안 등을 승인했다. 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칠순을 눈앞에 둔 마당에 지나간 곳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친구끼리 더욱 정답게 지내자"고 말했다. 이날 동문들은 이 호텔 영업상 무인 배종권동문의 특별배려로 마련된 맛있는 뷔페음식을 즐겼다.



양정우동문(오른쪽 두번째)이 남녀고용평등상 수상상을 받고 있다.

양정우(14회) 일신기독병원장 '탁월한 경영' 화제 남녀고용평등상 수상 크게 기여

양정우동문(14회·일신기독병원장)은 자신이 총괄하는 일신기독병원이 최근 '남녀고용평등대상' 우수상을 받는 데 크게 기여, 관련 의료계로부터 "병원운영비법을 알켜 달라"는 문의 등이 쇄도해 즐거운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대상(노동부·대한상의·한국일보사 공동주최)은 기업체가 근로여성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았을 경우 수여하는 상으로, 수많은 후보업체 중 5곳을 선정하는 귀한 상이다. 양동문은 지난 4월2일 대한상의 1층 국제회의실에서 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한명숙 여성부장관 등 350여명의 축하 속에 이 상을 수상했다. 일신기독병원은 재직 여성근

로자 422명(88%)중 50%이상이 기혼여성으로 주부근로자를 선호하는 여성전문병원이다. 이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장기간속을 하게끔 보육시설 기숙사 확충, 출산유급휴가 기간 연장, 딸사랑운동 전개(97년 대통령상 수상), 여성의료진(340여명) 및 조산자(2,300여명) 교육 배출등에 힘썼다. 또 장기근속자 포상 격려 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내실을 쌓은 결과 '남녀고용평등대상'을 받게 됐고, 이 같은 노력 뒤에는 원장인 양동문의 탁월한 병원 경영 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일신기독병원은 지난 1952년 호주의 여자선교사 맥켄지자매가 설립한 이후 50년 동안 여성들의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여성근로자 442명 중 주부만 50% 차지 권익신장·복리증진 등 최우선



제14회동기회는 지난 4월1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뷔페 에메랄드룸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고 한규환동문(부산정보대학 교수·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노수덕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박청홍 총무)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김건호총무 사회). 단합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이 소잔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제14회 동기회 서울·부산 정기총회

각각 신입회장 조규향·한규환 선출



제14회제경동기회는 지난 3월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조규향동문(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준호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동기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알찬 사업과 행사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조규향 △부회장=김덕호 김영우 김영치 김종수 김형수 서정환 오종철 윤승홍 이경우 이현영 전수신 최종규 허 중 △감사=조정현 △총무=오태홍.

'홈커밍' 준비위체제 돌입 제26회... 신입회장 김성환

제26회동기회는 지난 2월2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타운' 연회실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성환 수석부회장(김성환소아과의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내년 봄에 거행될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데이행사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최 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가족 6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 개선 등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총회는 의안 심의에서 △회장임기 2년(내년 홈커밍데이행사 준비위원장 겸임) △졸업30주년기념 홈커밍 준비를 위해 각 서울·지역 회 회장 총무를 집행부 부회장 선임 △기금증 일부 홈커밍데이행사 예산 총담 △서클지원비(각 30만원) 폐지 △PC구입 등 주요의안을 승인했다. 김성환 신입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최 현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김상현 신재호·김태년·고규석 허진호동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이병욱동문(한겨레 처과-연산교차로)이 2년간 연마한 세소폰 연주를 선보였고 교가 제창시 반주까지 맡아 실력을 발휘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김성환 △부회장=이성구 이철학 성백운 박상호 하성봉 지용섭 신재호 추창구 장종언 △감사=최윤림 △총무=박복수 서경호 유봉식 최명해.

가족동반 아유회 등 적극 추진 유대강화

제21회 회장 전경수

제21회제경동기회는 4월26일 오후 7시 서울 무역센터 52층 '바이킹홀'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이미 추천된 전경수동문(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전경수 회장내정자는 "저력의 21회를 과시하기 위해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 집행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가족동반 아유회와 체육회 등을 열어 유대강화를 촉진하며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데 성

원을 결집시킬 것은 결의하게 된다.

제26회도 홈페이지 운영

http://www.kyungnam.or.kr 기수별나눔터→'26회' 클릭 제26회동기회(회장 김성환)는 최근 여러 동기회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자극을 받아 '26회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엄윤섭동문(경성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 주축이 돼 구축된 '26회홈페이지'는 △ http://www.kyungnam.or.kr로 들어가서 '기수별 나눔터'를 클릭해 '26회'를 클릭하면 된다. 또 △http://dblab.ks.ac.kr/26k로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사진 등록할 동문은 회장이나 엄윤섭 동문(620-4782)에게 연락바람.



제29회동기회 2001년 정기총회가 지난 3월15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월드뷔페에서 열려 정유성동문(신진택시 대표·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휘철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사회 권두진 총무).

"어려운 동문돕기운동 전개" 제29회 정기총회... 신입회장 정유성

정유성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가족간의 유대 증진 △등산 바둑 골프 등 클럽별 활성화 △어려운 동문돕기운동 전개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신임회장은 권두진 총무를 유임시켰다.

제43회 새 회장 강병규 5월 11일 월례회 개최



제43회동기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부산시 중구 중앙동 민아식당(황규민 동문 운영)에서 2001년 정기총회를 열고 강병규동문(MONK 대표·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진규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강신임회장은 전세준 동문을 총무로 임명했다. 한편 새 집행부는 오는 5월11일 오후 7시 민아식당에서 두달마다 열리는 정례모임을 열 예정이다.

제 4 회

金炯運=(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시영아파트 35동 501호. 051-781-1593
朴弘錫=(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17-2 혜성아파트 102동 301호. 051-204-3328
林圭鍾=(자택)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 997 대신아파트 A동 301호. 055-573-8163

제 6 회

琴 瑛=3월 14일 모친 별세
鄭世東=4월 23일 부친 별세
尹榮穆=(자택이사)부산시 북구 금곡동 화목타운아파트 102동 207호. 051-361-2040

제 7 회

김용우=전 미국대사관 정치·경제 전문위원. 4월 3일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상임고문으로 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 서보빌딩 5층. 02-521-2005. 팩스02-521-2007. 핸드폰 017-202-7915

제 8 회

金澤奎=(자택전화변경)051-611-8819
金在汎=(자택)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우신아파트 101동 1807호. 051-522-8487
姜聖道=5월 6일 미국LA에서 딸 결혼
洪 光 秀 =홈 페이지 개설 (www.pod.pe.kr)
韓永根=김포시 감정동 삼한아파트 105동 1503호. 031-983-4838
김태규=4월 14일 청담동 탑웨딩에서 아들 지수군 결혼

제 9 회

李煥大=1월 24일 모친 별세
金乙淵=2월 9일 별세
朴暉錫=2월 18일 새마당예식장에서 아들 결혼
林鍾助=2월 2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딸 지연양 결혼
丁幸權=3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아들 상준군 결혼
崔性旭=(자택이사)부산시 북구 만덕3동 럭키아파트 8동 204호. 051-338-3723, 011-885-3723
李大圭=(상호변경)(주)아신통상. 051-464-4774, 463-4774. 팩스:051-463-4775, 016-551-5005

金容冠=(사무실이전)김해시 흥동 서부지구 7블럭 3롯데. 055-321-6283, 011-563-7015
李榮福=3월 29일 부산대 부속병원 943호 입원
朴浩一=4월 5일 동의대병원 545호 입원 투병 중
朴憲榮=(자택이사)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6 현대9차아파트 901동 2204호. 02-447-2507
金哲圭=2월 15일 모친 별세
李駟桓=2월 21일 부친 별세
安承判=2월 25일 대천 수협회관에서 딸 소영양 결혼
金仲英=(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700-1 수지1지구아파트 111동 1001호. 031-261-2457
崔在浩=(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1 삼성아파트 110동 1002호. 031-709-5151
韓東大=2월 3일 오랜만에 사무실 방문하여 이날 나온 동문과 저녁식사하며 반갑게 시간 나눔
金哲圭=2월 24일 동기회사사무실에서 열린 쌍팔회 1차 이사회에 참석한 20여명의 동문을 전원 초대하여 저녁식사 대접

제 10 회

鄭承錫=3월 31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아들 태양군 결혼
金東旻=4월 21일 금강예식장에서 아들 정윤군 결혼
金基訓=부산시 남구 용호4동 481-8 동방파크아파트 3동 403호. 051-621-5149
朴野原=부산시 북구 구포3동 49-2. 051-341-2619
李慶道=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LG아파트 114동 305호. 051-704-2660
梁亨準=3월 2일 부친 노환으로 별세
辛峰壽=(자택이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96 럭키아파트 8동 102호
徐昌錫=4월 14일 서울 중구 소피텔 엠버서더호텔에서 딸 결혼
李啓昌=삼명자동차부품(주) 상임고문 취임. 408-2. 02-2217-5355

제 11 회

李康雨=(자택이사)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7-3 엘로즈카운티 1005호. 02-2055-1234

제 12 회

權時吉=3월 17일 서울에서 장녀 결혼



金光洙=서울대학교 교수. 3월 7일 모친 별세
金石柱=4월 8일 장녀 결혼
金鎔昊=금호산업사 대표. 051-243-6868
金容鎬=12회 경문회 회장으로 3월 12일 새해 첫 월례회(금화초밥)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金宰旭=대연성림병원 원장. 051-611-3566
金準鐵=중 서 영도지역 회장으로 4월 6일 월례회(화촌한식)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嚴泰燮=사상 사하 강서지역 회장으로 3월 25일 구덕산 등산모임 때 수고가 많았습니다
李相甲=2월 24일 서울에서 장녀 결혼
李春相=(주)도남종합건설 이사. 051-555-3549
鄭鉉大=3월 14일 모친 별세
鄭榮喆=3월 6일 남성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2세 교육에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趙殷秀=3월 3일 서울에서 차남 결혼

제 14 회

金亨洙=대호물류산업(주) 대표. (사무실이전)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266-6. 054-775-4802, 011-855-1856
朴朝明=(자택이사)부산시 서구 동성동1가 4-43 (5/1). 051-246-9507
盧守德=(주)금양 회장. 322-5881. (자택이사)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349 대림파크빌 101동 1001호. 051-806-0579
孫義雄=천일물산(주) 국장.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 천일빌딩 9층. 051-805-2566, 011-587-4683
金泰植=2월 20일 별세
鄭鉉求=부영약국 대표. 3월 14일 모친 별세. 051-555-9007
李孝根=4월 1일 하모니웨딩타운에서 장녀 결혼. 051-627-4967
朴三現=4월 1일 아리랑관광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1-265-1472
尹英鉉=(주)영케미칼 대표이사. 4월 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장남 결혼. 051-862-6312
潘米太=(주)서강엔지니어링 단

장. 4월 8일 서라벌호텔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1-465-2551
文聖弼=문치과의원 원장. 4월 15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차남 결혼. 051-245-0624
曹泳鳳=현대 창조 대표. 4월 22일 부산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051-467-9484
朴清吉=산업의학연구소 원장. 4월 22일 골든웨딩홀에서 장남 결혼. 051-811-1591

제 15 회

崔正雄=(자택이사)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척과리 749 척과초등학교. 052-211-9002, 016-444-9636
金茂吉=(자택이사)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북우체국 사서함 32호. 02-433-0038, 017-557-8005
黃春植=(주)마리오스(학원 교육 SITE) 고문/이사 취임. (자택이사)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삼창파크 6동 1301호. 051-622-5247~8, 019-506-4397. E-mail: jagyuh2001@yahoo.co.kr http://www.nmyoss.co.kr
金成明=4월 7일 부친 별세
崔炳宇=4월 13일 국제호텔 용마홀에서 딸 경운양 결혼피로연
沈載一=4월 22일 금정문화회관 귀빈실에서 장남 성용군 결혼

제 16 회

李鍾喆=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1월 8일 모친 별세
辛平洋=태평양약국 대표. 1월 10일 모친 별세
李吉秀=(자택)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LG아파트 108동 304호. 051-757-2086, 1월 24일 모친 별세
金良和=MBC광고사업국 사업위원. 051-761-1103. (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대신시가지 삼안리젠시 6차 401호. 051-742-2622
林 實=(주)범주항공여행 부산장으로. 051-461-0940
李鍾昇=주영광고회 담임목사. 051-242-6208. 부설 나눔의 집 운영 중
孫松邦=동성한의원 원장. 051-242-6010. 주영광고회 부설 나눔의 집에 1년간 침술등 무료진료 중
崔安弘=최소아과의원. 부산시 화명동 신시가지. 051-334-1817
李成男=HIAPT.COM(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해운대 크리스탈 O/T 1104호. 051-742-5621
李均五=대구 진양섬유 대표. (사무실이전)대구시 달서구 성당1

동 115-1. 053-254-8806
朴基奎=(승진)부산은행 부행장. 051-645-5514
朴鏞吉=(승진)PSB(부산방송) 상무이사. 051-850-9060
洪晶吉=(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대신시가지 대창아파트 105동 901호. 051-741-8232
李武榮=3월 24일 신부 박성자씨와 조선비치호텔 가야룸에서 결혼
金英夫=부산대 미생물학과 주임교수(이학박사) 장남 세종군 결혼
李在隆=일본동경 베테스다교회 목사. 3월 29일 모친 별세
金修石=동서대 교수. 4월 14일 장녀 민정양 결혼
楊正德=4월 21일 울산에서 장남 대우군 결혼
尹永植=동기회장. 16회 사하지구 모임에 금일봉 전달
申榮俊=마산. 055-246-6963. 4월 22일 장남 용호군 결혼
崔正日=일육산악회 사무총장. 4월 28일 장남 재원군 결혼
金吉井=일육산악회 회장으로 피선. 051-205-7153

제 17 회

鄭海電=동기회 신임회장. 팬더특수지류수입판매상사 대표. 북구 정형근국회의원 사무실 책임자. 051-245-4100, 011-564-3159
姜株水=동기회 총무. 영도해동병원 옆 영도우리약국, 동해약국 약국장. 051-416-3232, 011-579-5362
朴在具=3월 18일 침례병원에서 모친 별세
申武太=대성부동산 소장.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051-271-0016, 011-841-9510
李鍾德=국세신문사 사장.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051-500-5114
金榮歡=사천 삼천포 세무서 출장소장. 011-554-5994
黃秀吉=부산진세무서장 명예 퇴직
李亨佑=구평초등학교 교장. 016-572-2685

제 18 회

池文碩=3월 2일 소아과개업. 부산시 화명동 1170-1 대림상가 203호. 051-363-1131
高萬淑=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한양아파트 31동 105호. 051-758-3340
姜大圓=부산세관 화물과 과장으로 승진. 051-624-5726
權敏七=삼성중공업 LNG팀 고문. 055-630-3011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金正來=부산정보산업고 학생부
장. 051-853-0951
南斗鎭=금강에식장 대표. 051-
554-7500
朴鍾淳=박종순산부인과의원장.
051-323-0555
李相永=부산의료원 건강관리과
과장. 051-866-9031
崔翔憲=청천화원 대표. 051-647-6167
崔成浩=(주)대한화학상사 대표.
051-645-3367
洪鍾秀=SK콜렉션 대표. 051-514-0113
박덕봉=수석부회장. (주)대원
SCN 대표. 055-289-1700
金英玉=오페라하우스 경영. 부산
시 사하구 하단로타리. 051-294-
0995
金相奎=(주)동남상사 대표. 4월
21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녀 결
혼. 051-324-6161
朴善東=동주대학 국제비서과 교
수. 051-200-3246
李成一=2001년 동기회 회장 선
임. 051-293-5554
李鎭國=동대2 새마을금고 전무.
051-255-9072
崔元一=(주)고려철강 대표. 051-
317-1800
千斗甲=유니코상사 대표. 4월 14
일 하모니예식장에서 장녀 결
혼. 051-319-3931
黃光健=업공에서 지성소아과 개
원. 051-323-3505

제 19 회

李相滿=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장으로 전보. 충북 청주시 상당
구 우암동 343-1. 043-251-2200

제 20 회

金台英=(주)명신산업 대표이사.
051-418-6031
朴重根=세원환경산업 상무. 051-
262-3726
朴在仁=(영전)성호실업(주) 중
국천진유한공사 사장
尹柄奎=신동양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051-469-5154. 4월 11
일 통도CC에서 열린 이공골프
회 정기모임시 #북12홀에서 홀
인원을 기록하여 회원들의 축하
를 받았다
許南均=(주)현대항공 대표이사.
055-252-2988. (자택)부산시
강서구 봉림동 758-63

제 21 회

姜淳久=부산신항만(주) 재무팀

이사.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7-5 한국감정원 빌딩7층.
051-601-8550
金吉瑞=3월 17일 김길서소아과
의원 개원. 부산시 해운대구 개
송1동 1090-35. 051-781-7582
김재익=시간여행 책방.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1-579
(9/1). 051-819-4836
金正泰=3월 28일 심장마비로 별세
白庚泰=해운대고등학교 교사. 051-
752-3619. 3월 23일 부친 별세
安采植=우리 I&D 대표. 051-245-
6241
李珣義=보수동에서 21세기 김삿
갓 개업. 051-256-4564
曹喜夫=충북 괴산. 043-832-8063.
4월 4일 부친 별세
姜圭涉=국방연구소 실장. 042-
821-4653. (자택)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동아 불암아파트 103동
405호. 02-3392-3132
姜和中=국방대학원 정책과정 교
육중. 017-511-8778
金南圭=지난해 7월 18일 행사부
산하 한국 직능단체 총연합회
주관 신지식인 선정
金文彰=국립개발원 임상병리실.
02-901-1664. (자택)서울시 종로
구 행촌동 210-352. 02-737-6169
金秉鐸=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아
시아 자재담당이사. 055-260-9004
金尙夏=한빛은행 포스크 기업금
용센터 센터장. 02-3453-6610
金淳棋=(자택)서울시 노원
구 상계동 1282 상계2차 중앙하
이즈아파트 208동 304호. 02-
932-1092
金宇均=지암산부인과(병원이전)
관악구 봉천동. 02-568-0061. 지
난해 11월 28일 모친 별세. (자
택)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나
산스위트 2401호. 02-841-0062
金仁默=한국과학재단 수리과학
전문위원 파견근무. 042-869-
6501
金顯奎=(자택)서울시 서초
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7동1001
호. 02-595-6733
金熙建=한국수질개발(주) 기술
고문. 017-226-1986
朴敏植=1월 30일 모친 별세
朴奉欽=3월 17일 부친 별세
方孝相=LG전자 서울영업담당
상무. 02-2005-3013
吳武泳=주택공사 도시정비부장.
02-3416-3670
吳旭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02-3277-2619. (자택)서울시 강
남구 대치1동 주공고층아파트
307동 305호. 02-564-0661

全在浩=N-TV(주) 대표이사. 02-
598-2142
李在欽=(주)이상건축 대표이사.
02-549-5383
李宗烈=영일홍산 대표. 02-384-
7771
李太浩=한일부동산랜드 대표.
011-749-0020
林名雄=제일공인중개사 대표.
031-945-1669
張星漢=2월 15일 장남 은서군 사망
鄭炳喆=아주 G.O 엔지니어링
(주) 전무. 02-3461-0664
鄭才一=지난해 11월 29일 간암으
로 별세
趙德俊=2월 18일 부친 별세
崔英太=3월 18일 부친 별세
許吉用=(개업)부동산시터. 서울
시 구로1동. 02-855-0055
許 汶=주일한국대사관 상무참
사 동경주재. 03-5476-3261
金景德=(R)5202 Lena Dr. La
Paima, Ca. 90623. 714-826-1936.
(B)Daily Sub. 601 W. Victoria
St. Compton, Ca. 90220. 310-631-
8651
金東薰=(B)OK Water System
14916 Lemol Ave., #28
Gardena, Ca. 90249. 310-679-0300
金漢星=(R)11718 Folkstone Lane
Los Angeles, Ca. 90077. 310-471-
5883. (B)In & Out Car Wash
1420 N. San Fernando Rd.
Burbank, Ca. 91504. 818-848-8550.
羅千澤=(R)1050 E. Cypress Ave.
Burbank, Ca. 91501. 818-563-
9414. (B)Mountain General
Construction 515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60
李東秀=(R)23125 Madison St.,
#215 Torrance, Ca. 90505. 310-
375-1236. (B)T.D.I LTD. 112 W.
9th St., #529 Los Angeles, Ca.
90015. 213-624-2090. E-
mail:DSLLEE2@earthlink.net
李相杰=(R)2545 Via Campresina
Palos Verdes, Ca. 90274. 310-
378-2072. (B)Bel-Comp Car
Wash 9765 Somerset Blvd.
Bellflower, Ca. 90706. 562-867-
4006

李輝東=(B)Korean Air LA(지점
장) 181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484-5701.
(HP)213-999-1292
鄭明奎=(R)55 Bethany Dr. Irvine,
Ca. 92715. 949-854-6904.
(B)Ameth Inc. 12802 Knoll Ave.
Garden Grove, Ca. 92841. 800-
447-2587
陳泳吉=(B)714-891-7788
千炳奎=(R)18905 S. Gable Circle
Cerritos, Ca. 90703. 562-860-2509.
(B)United Alto Pants 17011 S.
Main St. Gardena, Ca. 90248.
310-329-8885. E-
mail:BKCHUN@earthlink.net

제 22 회

朴文和=히타치 LG데이터시스템
(주) 대표이사로 승격. 031-610-6000
李承輝=세아특수강 대표이사 겸
기획조정실장 02-596-7851

제 24 회

文燮濟=부산은행 감전동지점 기
업고객지점장. 051-312-5306
裴尙郁=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
영학과 교수. 051-620-6551
李在晟=한전복합화력 건설처 총무
과장. (자택)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200동 2111호
周点權=삼송초밥 대표. 4월 8일
부친 별세. 051-245-6305
蔣敏在=남성해운(주) 이사. 4월
27일 오후 5시 서울 리즈칼튼호
텔에서 장녀 승아양 결혼 051-
469-9152
田文植=(개업)레저스포츠점 영
원프라자 사하점. 051-266-2960

제 26 회

姜孟源=(주)유신 화명지구 감리
단. 051-337-1250. 2월 23일 부친
별세.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 210동 1501호.
051-704-2273
姜秀男=세아건축사무소 소장.
051-583-1817. (자택)부산시 북
구 만덕동 그린코아 601동102호
朴福洙=대명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주공3단
지 락희상가 110호. 051-703-
6866. 6684
朴在昌=(주)한일리조트 환타지
아. 055-370-3010. (자택)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구서주공아파트
32동 502호. 051-582-5156. 011-
585-0001

成百運=성백운소아과. 051-404-
2800.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선
경아파트 101동 1305호
嚴允燮=경성대 컴퓨터공학과. 051-
620-4782. (자택)부산시 금정구 구
서2동 선경아파트 5동 502호
金允奎=미네소타치과. 동구 초량
해정빌딩4층. 051-966-7575
朴相昊=박상호정형외과. 북구 패
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051-
326-0888
崔潤林=송광호철판요리집 북구
구포2동. 051-341-7852
姜仁伯=본부동창회 부회장. 동흥
실업 대표. 부산시 사하구 대대
동 370-14. 051-263-2341
李廷國=울산거주 내과의사. 3월
9일 모친 별세
李武和=위생병원 진료부장 취임
朴相浩=박상호법률사무소. 울산
시 남구 옥동 583-4 삼호빌딩 3
층. 052-275-9010. 9020
홍순하=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
업무
徐哲守=부산은행 서면지점장.
051-811-1120
尹鍾燮=국제신문 논설위원실 논
설위원. 051-500-5033. (자택)부
산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1차
106동 1202호. 051-704-4747
金 石=한진중공업 이사. 051-
410-3641. (자택)051-463-6856
張元鏞=변호사. 부산시 서구 부
민동1가 18-9. 051-248-0510.
0511.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개
금3동 9-2 성도빌라 503
金正武=슈퍼리어 대리점. 부산시
중구 광복동3가 6. 051-245-6229.
(자택)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반도보라타운 101동 203호
하원규=동양건설 부산지사장.
051-265-1115
孫榮秀=(주)경국. 051-463-9762
安修正=우성사약국. 부산시 남구
감만2동. 051-646-0233
鄭昇圭=21MMS. (자택)부산시
부산진구 당감3동 주공아파트
303동 1405호
朴再柱=청주교육대학교 윤리교
육과 교수. 02-445-7752
金景二=김경이이비인후과. 연산
로타리.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아파트 108동1203호
文相奎=대연여중 교사. 051-646-
9936.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개
송동 글로리아아파트 7동 503호.
051-781-1620
金石根=26회 울산지역총무. 011-
872-2083. 경주시 외동읍 구어1
리 838-2 경동FRP조선. 054-
773-4226~7.

제35회동기회 졸업 20주년기념 모교방문행사

흥커밍데이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5월5일(토) 오후 3시
▲ 장소: 모교 근사기념관

<p>본부동기회(회장 정윤성)</p> <p>재경동기회(회장 정충길)</p> <p>김해동기회(회장 유재상)</p> <p>마산창원진해동기회(회장 김영철)</p> <p>울산동기회(회장 이복근)</p> <p>거제충무동기회(회장 이철규)</p>	<p>고문</p> <p>정우철 심재철 이기섭</p> <p>부회장</p> <p>김동일 도창호 배성일 이명진 장인화</p> <p>전성율 정규식 정충길 정해준</p> <p>감사</p> <p>김길호 안종일</p>
---	--

신록 속에 꽃피는 우정과 낭만... 축제한마당 "딩더쿵"

등산·낚시·골프대회· 홈커밍데이 '감동예약'

늦봄이 신록을 재촉한다. 본부동창회는 꿈과 희망과 우정을 꽃피우는 4 5월을 맞아 각종 행사를 의욕적으로 추진, 동문가족의 '보람의 만남'을 통한 일체감 조성과 조직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본부동창회 4~5월 행사 일제히 추진

먼저 4월 중에는 본부 집행부의 사명감 제고를 위한 두 차례의 회장단 골프대회(3월31일, 4월21일)와 8년만에 부활된 제12회 기별대항낚시대회(22일) 등을 주관했다.

특히 제25회동기회가 오는 28일 추억의 축제 홈커밍데이행사(졸업30주년기념)를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올들어 첫 테이프를 끊고, 13일 동창회장기쟁탈 제26회 용마테니스대회(장소 추후

발표)가 열려 우정한마당을 펼친다.

본부동창회는 이어 5월 중에도 홈커밍데이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홈커밍데이축제 경우 5일 제35회동기회가 졸업20주년행사를, 12일 제15회동기회가 졸업40주년행사를 각각 모교 국산기념관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오는 27일 지난해 본부동창회가 창립한 용마산악회 주관 제2회 동창회장기쟁탈 기별대항 등산대회를 열어 동문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김준연 (17회) 제1회 한림인술상 수상



김준연동문 (17회·동아대 의대 교수·사진)은 동아대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한림인술상을 최근 수상했다.

한림인술상은 '인술동아'의 구현을 위한 한림 정수복박사의 의지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구 교육 임상 사회활동 등을 통한 동아의대 및 동아의료원의 발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동기회 회장과 본부이사를 지낸 김동문은 동아대 의대 4~6대 의대학장·산업의학연구소장·동아대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산업의학회장을 맡고 있다.

'건강통계자료의 수집 및 표준화' 등 9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7권의 저서·참고서 등을 저술했다.

본부 회장단 '그린필드 회의'

두차례 친선골프대회...송규정 부회장 (16회) 출신원

메달리스트 김진철 (25회)

본부동창회 올해 3차 회장단회의가 지난 4월21일 부산 금정구 두구동 부산CC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겸해 열려 △국내외 지역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각 동기회 결속력 강화 촉진 △동문가족 유대강화 △가족동반 행사 장려 등 조직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대제 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회장단 회의에 앞서 열린 2차 회장단 친선골프대회는 오전 7시30분부터 아웃코스 3개조와 인코스 2개조 등 모두 5개조로 나눠 티업했다.

특히 송규정 부회장(16회)은 이날 행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송부회장의 이 같은 협찬은 지난 3월31일 부곡CC(박재상 부회장 운영·22회)에서 열린 본부회장단 올해 2차회의의 겸 1차 회장단 친선골프대회 중 자신이 동코스 5번홀에서 라운딩 25년만에 '출신원'의 영광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베풀게 된 것. 출신원 트로피는 동반자(9회 박한복·11회 안강태·14회 노수덕 부회장)가 전달했다.

이날 대회는 동코스에서 3개조, 서코스에서 2개조가 각축전을 벌여 ▶메달리스트 김진철(25회) ▶우승 송규정(16회) ▶준우승 박명진(33회) ▶3위 김병수(22회) ▶행운상 최동식 동문(31회)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2차 회장단회의의 경비는 부곡CC를 운영하는 박재상 부회장(22회·천일그룹

사장)이 전담했다.

1~2차 회장단 친선골프대회는 준비위원장인 박병선 부회장과 본부사무국 김병수 총무부장, 부곡CC 이치백 사장(22회)의 헌신으로 성료됐다.



<지난 4월 21일 열린 본부동창회 회장단 2차회의. 조대제회장(왼쪽 네 번째)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친선골프대회를 겸해 열렸다. 송규정 부회장(서있는 중앙)이 출신원 축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생애 첫 출신원... 영원한 감격"

송규정 본부부회장 소감

"라운딩 25년만의 쾌거로, 일생 잊지 못할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31일 부곡CC 동코스 5번홀에서 생애 첫 출신원을 거양한 송규정 본부부회장(16회·윈스틸 대표이사)이 주변의 환성에 휩싸인 채 감격의 심경을 토해냈다(사진).

이날 송부회장은 본부동창회 회장단회의의 겸 친선골프대회에 참석, 서코스 2조로 박한복(9회) 안강태(11회) 노수덕부회장(14회)과 라운딩을 벌였다.

송부회장은 동코스 5번홀에서 145m 티샷을 한 공이 창공을 한참 치솟았다가 낙하, 홀컵에 극적으로 톱퍼 감격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

이에 따라 송부회장은 '출신원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회장단에 둘러싸여 같은 조의 세 선배가 전달한 기념 꽃다발을 받아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제15회 지역회 활발

제15회동기회의 지역회 행사가 지난 3월에도 활발히 열려 동창회가 추구하는 화합과 결속의 밑거름이 됐다.

▶화천회장 김판열 : 화천회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도초밥'에서 제11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김판열동문, 감사에 이승남 직전회장, 총무에 김중태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회장을 비롯 11명이 참석했고, 정준수 초대회장이 양주1병을 협찬해 분위기를 달구었다.

▶사하회장 김창구 유임 : 사하회는 지난 3월27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괴정동 '동백솔 불길비집'에서 제36차 정기월례회를 개최, 김창구 회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15명의 참석자들은 김회장을 비롯, 손부흥 한해수 권승부 김황영 동문의 특선금으로 2부행사(희망노래방)를 즐겼다.

▶이화회장 이추남 : 이화회는 지난 3월13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남천동 '조원복국집'에서 정기월례회를 열어 이추남 동문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했다.

김광홍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8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꿈이 깃든 여행나라
월드드림투어(주)

**정리해고, 불경기, 교육문제
사는 삶이 왜 이리 힘듭니까?**

그러나 축쳐진 어깨 위로 살며시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힘내게! 다시 시작하세요!"
그 '손'의 이름은 바로 '동문'입니다.

축쳐진 어깨를 감싸는 그런 동문의 손이 되겠습니다.
용마가족의 여행사! 꿈이 깃든 젊은 월드드림투어(주)

대표이사 박영호(34회) 전무이사 구봉수(34회)
총무이사 황용민(34회) 고 문 김화옥(14회)

업무안내

- ▶국내외 여행상품 (개인 단체 신혼여행 골프투어 기업체연수 인센티브 등)
- ▶국내외 항공권 판매
- ▶여권 및 비자 수속
- ▶배낭 및 어학연수
- ▶국내외 호텔 및 지상수배

월드드림 하계 어학연수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대상	초 중 고	초 중
기간	3주	3주~1개월
운영 형태	홈스테이+ 정규학교 수업참가	·기숙사+어학당 ·수학교사 동행
아르바이트 세계 체험	·농장체험 3개월	
	·농장체험+어학연수	
배낭여행	·어학연수+가정체험	
	유럽 미주 호주 일본	

자유와 고소득의 지름길
"여행매니저"를
초빙합니다.

특전 : 월4회 부산일보 광고
교육 및 홍보물 지원,
해외출장 기회 우선부여

마감 : 2001년 5월말

**배낭여행 경험
신입사원모집**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53-11 동아일보사빌딩 1층
TEL (051)468-0025 FAX (051)468-0026